

마침내 식어가는 이념지향의 독서열

理想인가 理解인가

70년대에 대학 문을 들어서서 중간에 군대를 마치고 80년대에 사회로 나선 내게 책이 갖는 사회사적 의미는 대단히 다의적이다.

80년대에 대학 문을 들어선 조금 뒷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시공부의 부담이 덜했던 탓에 고등학교때까지 제법 글줄깨나 읽은 편이었고, 그같은 독서체험으로 구축된 인문적 교양은 이전까지와는 확연하게 다른 대학사회의 문화충격을 불완전하나마 그럭저럭 소화해낼 수 있는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었다.

신입생 시절 '의식있는' 선배들이 권해준 몇권의 책들에서 세계관의 개종을 유혹당하며 때로 곤혹스러워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는 신중한 편이었다. 그때까지의 독서체험을 하잘것 없는 것으로 無化시키기엔 용기가 부족했던 것도 같고, 또 어쩌면 아깝기도 했을 것이다.

마르크주의 신좌파이론, 본 회퍼의 저항신학, 아민이나 산토스 등의 종속이론, 프레리의 갈등론적 교육학, 루카치의 마르크시즘미학 등에 새롭게 매혹당하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유일한 聖典으로 경배하는 데까지는 결코 나아가지 않았다. 그것들은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견해를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

지난 연대의 내게 있어 책의 사회사적 의미는, 그래서 다의적이다. 서정주나 청록파에 길들여져 있던 입맛을 김수영이나 김지하가 변화시켰는가 하면, 한편으로

황동규나 정현중 또한 그랬다. 황석영의 「객지」에 빠져들면서도 최인훈의 「회색인」을 밤새워 읽었고, 강만길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끼고 다니면서도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는 여전히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이었다.

총계 보면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었고, 나쁘게 보면 어정쩡한 절충의 상태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의 경우였다. '우리들'의 책임기는 이미 절충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택적이었다. 인문적 교양보다는 사회과학적 이념의 습득에

지난 연대의 책의 문화가

이념이라는 중심축으로 수렴되는, 어떠한 배타적이기조차 한 응집력을 특징적으로 드러냈다면, 90년대의 그것은 뚜렷하게 부각되는 단일한 중심축이 없이 다양한 확산과 해체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요즘말로 포스트모던하다. 90년대의 책의 문화는 인문적 교양의 이해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책임기의 더 큰 무게중심이 놓여 있었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지식 자체보다는 그것의 '방향'이 더욱 중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책은 단순히 세계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세계와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실천적 전략이나 도덕적 당위로서의 이념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했다.

현저하게 이념지향적이었던 80년대적 책임기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성사의 분수령을 이뤘다고 평가될 만큼 대단했다. 그같은 책임기가 우리 당대의 거의 보편적인 지적 풍속도가 되면서 그것은, 진보적 세계관의 확립에, 역사와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들의 획득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구조와 현실을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의 고양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우리 정신사에 있어 가장 급진적이며 개방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낳았다.

그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 바로 마르크스이다. 80년대의 책임기가 보여준 인식변화의 가능성은 마르크스를 빼고는 결코 논의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념에 따라 세상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마르크스나 마르크스에 관련된 어떤 것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의 이해를 비로소 가능케 하거나 보다 선명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이념지향의 80년대적 책임기가 끼친 공헌은 크다.

다소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덕분에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게 됐고, 사회주의, 혁명, 유물론, 제국주의, 계급투쟁 등의 단어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쫓아섬기고 있다. 심지어는 '김일성주석'이란 말도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80년대적 책임기를 통해 추구하고 획득한 이념은, 말하자면, 해방이후 우리 현대사가 운명적으로 수락해야 했던 정신의 분단과 의식의 편향성, 사고의 흑백논리와 선택의 편협성을 극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셈이다. 그것은 우리들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키는 유능한 첨병이자, 또다른 세계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으로 이끄는 훌륭한 전위의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금기의 체계를 벗어나 사유 전반에서의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포괄할 기회를 만들어준 이념지향의 책임기는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제 사정은 달라졌다. 마르크스를 그 중심에 두고 있는 이념지향의 사회과학적 사고가 중산층의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과 동구 및 구 소련 등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를 맞으면서 점차 '외로워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지성사에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뚜렷한 흔적을 남긴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마르크스 혹은 마르크스적인 것의 현실적 유용성에 대한 더이상의 전폭적 신뢰는 이제 쉽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80년대적 책임기 풍속의 주된 흐름을 형성했던 이념지향은 90년대 들어 이념편향 내지 이념과잉으로 비판받기에 이르렀다. 그 비판은 대개 두 갈래로 표현되고 반영되는데,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진보하게 내부의 갑론을박 및 새로운 변혁론의 모색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출판과

디자인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여름새벽은 알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들의 정성과 노고가 깃들여 있습니다. 지은이나 옮긴이의 불면의 시간들, 기획·편집자의 꿈과 현실, 디자이너의 초조와 좌절, 재판·인쇄·제본 과정의 압박, 영업자의 순수한 땀과 정교한 계획 그리고 독자들의 정직한 평가를 통해 한 권의 책은 완성됩니다.

●여름새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 출판계의 불황, 예측하기 어려운 독자들의 변덕, 언젠가 텅없이 부족하기만 한 시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름새벽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 때문에 책이 성공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의 정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새벽의 디자인이 그 모든 이들의 정성과 노고를 더욱 돋보이게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표지·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단행본·잡지·사보편집대행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62-63 전화/325-4963·4 팩스/325-4965



독서의 일반적인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책에 이념을 담거나 책에서 이념을 기대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념지향의 사회과학도서는 적어도 독서대중의 차원에서만큼은 이제 생산에서나 소비에서나 한물 갔다는 게 아마도 훨씬 더 솔직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책을 통해 추구했던 80년대의 이념과 그것이 지향한 사회과학적 인식들이 앞서도 말한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해체로 자연스럽게 빛이 바래질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80년대의 강력한

이념지향 자체가 이미 이상열기의 혐의가 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열기가 식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의 독서성향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 80년대를 통틀어 이념은 정도 이상으로 과소비되는 바람에 이제는 물릴 때도 됐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책문화의 흐름이 일정부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90년대는 탈이념의 시대이다. 80년대의 책의 문화가 이념이라는 중심축을 향해 수렴되는, 어쩌면 배타적이기조차 한 응집력을 특징적으로

드러냈다면, 90년대의 그것은 뚜렷하게 부각되는 중심축이 없이 다양한 확산과 해체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요즘말로 포스트모던하다.

90년대 책의 문화는 보다 폭넓은 인문적 교양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정신의 치열성이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80년대에 못미치지만, 그 치열성이 빠지기 쉬운 편벽된 진지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프로라하는 선부른 깊이보다는 좋은 의미의 딜레탕트적인 넓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양으로서의 책읽기의 본래적 의미에 가장 근접해 있다.

90년대의 우리들 책의 문화는 그만큼 너그럽고 편안하고 개방적이다. 어쩌면 훨씬 더 성숙해 있다. 그것은, 책을 통해 '지식의 윤리학'을 발견해야 한다는 무거운 도덕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90년대의 책이 텍스트로 삼고 있는 세계와 사회는 마땅히 변혁으로 이끌어야 할 이념적 당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엄연히 존재하는 이해의 대상이다.

책문화의 무게중심이 이처럼 '이념'에서 '이해'로 이동했다는 것이 과연 발전과 퇴보의 어느쪽에 해당하는지는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념지향의 책문화가 특정이념에의 집착으로 앞의 다양한 가능성을 애초부터 제한하는 데 반해, 이해지향의 책문화는 어떤 한 가치의 선협적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정신의 유연함이나 개방성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념지향의 책읽기가 일정한 목표를 겨냥해 정신의 칼끝을 날카롭게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해지향의 책읽기는 자잘하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허투루 버리지 않도록 정신의 그물을 촘촘하게 엮는 일에 유용하다. 하나가 연역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귀납적이다.

그 둘 가운데 어느쪽이 더 옳고 효과적인 책읽기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90년대의 우리들 책의 문화는 이념지향에서 이해지향으로 거의 10년만의 귀환길 위에 서 있는 듯하다. 마치 이제는 돌아와 거울앞에 선 내 누님처럼.

— 강철주 기자

패기에 찬 편집인을 찾습니다

'혼이 담긴 책을 만든다.' 도서출판 성우서원은 학습 참고서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단행본 출판을 목적으로 1991년 9월 2일 설립된 신규 출판사로서,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실무에 밝은 편집간부 한 분과 유능하고 패기에 찬 편집사원 몇 분을 찾고 있습니다.

▶**편집간부직** — 성우서원의 책을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출판·편집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실무에 밝은 한 분.

▶**영어참고서 편집사원** — 영어교재 편집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영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으며, 학원 강이나 과외를 통해 학생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는 분. 혹은, 기타 학습교재 편집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

▶**번역직사원** — 영어·독어·불어·일어·중국어 등의 우리말 번역에 자신과 관심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 전공 여부와 경력 유무에 관계 없음.

▶**단행본기획·편집사원** — 출판 일반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우리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그래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출판물 기획에 뜻이 있으며, 우리말 교정을 정확히 보아낼 수 있는 분.

자필 이력서와 상세한 자기 소개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면접 여부는 서류를 받아본 뒤, 2주 안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판 성우서원

부설 : 기과랑 영어교재 연구실
하준호 번역문화 연구실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빌딩1013호
대표전화 717-1930 / 팩스 701-1930